

와이파이-공간 감각

도쿄 여행은 와이파이 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조금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 앞에는 항상
흡연구역이 있었고 무료 인터넷도 있었어요. 흡연자들은 이곳에 모여
담배 연기와 인터넷 신호를 공유하며 흡연을 합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묘한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곳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피는 사람들!

담배피는 사람들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점유하는 것.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베이비붐으로 한 학급에 5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고, 한 학년에 10학급이 넘는 학교도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에 학생 수가 꽤 많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운동장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의 큰 어른이 전교생에게 말을 걸고... 에헴. 그때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은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 가청 범위 안에 모두 모였기 때문일 거예요.



img2

가상의 놀이터에서 함께 존재하고 점거하는 것. 새벽 3시경,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악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자유토론회(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토론과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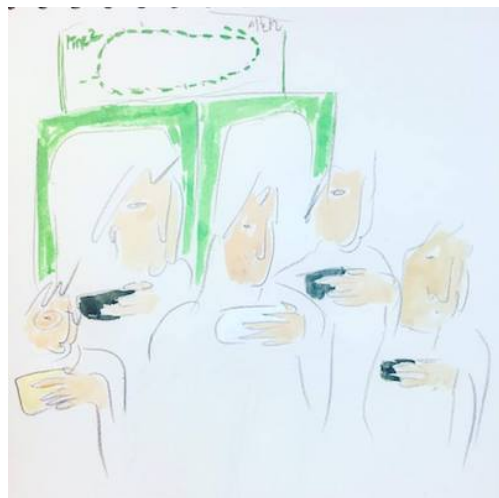


img3

사진은 출퇴근 피크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 풍경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30분 이상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땀 냄새를 공유합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 너머의 누군가 또는 어딘가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주의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img4



img5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WiFi를 켜면 재미있는 제목의 WiFi가
나타납니다. 내 WiFi를 사용하지 마세요.



img6

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 메이더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국가와 대학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스마트폰 LED를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고 점거하며 행동하는 것. 존재와 점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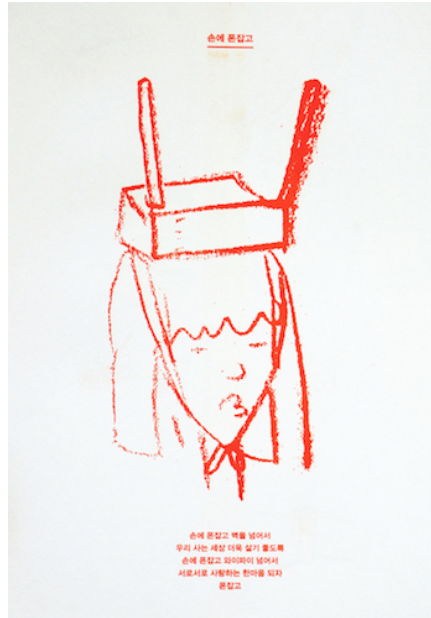
img8

소리가 전파되는 공간, 신호가 전파되는 공간, 침입하는 문구. 그 틈새로 살짝 밀고 들어가는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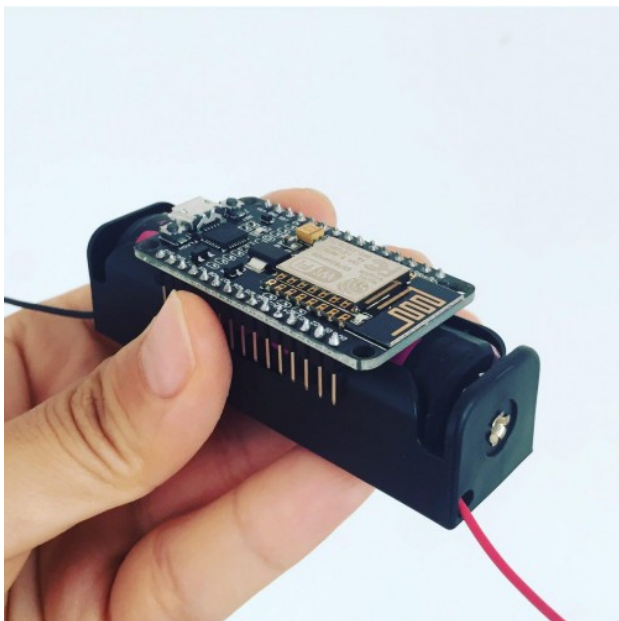
img10

보행 신호는 어떨까요?



img12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면 팝업 페이지가 뜨고 ... WWW와 연결되지
않은 웹 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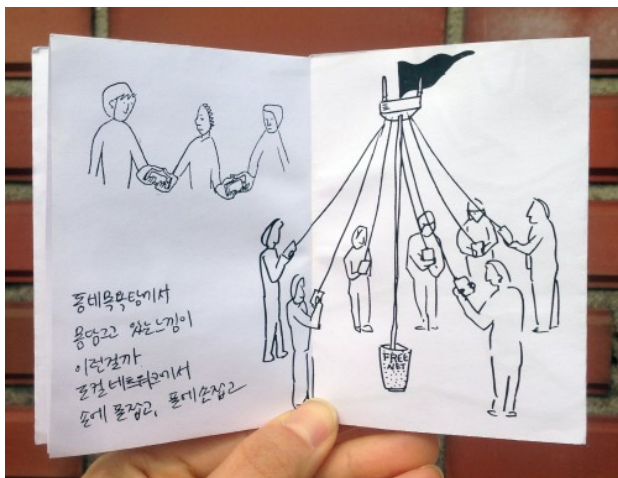
img13

Wi-Fi ZINE 플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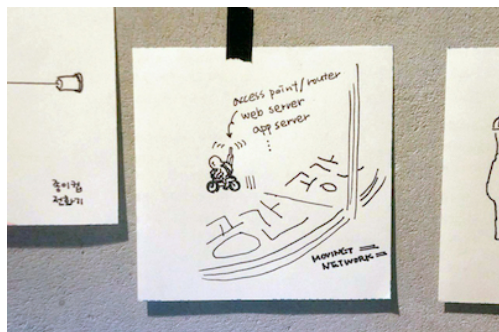
img14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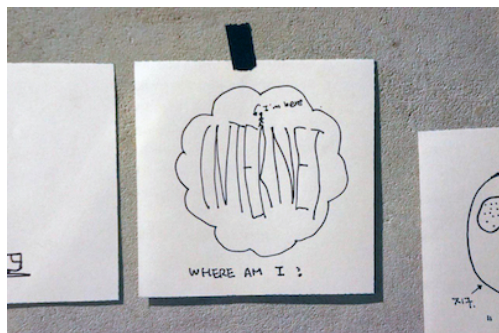
img15

보행 신호



img19

글로벌 - 로컬, 메가진 - 진



img20

부산 네트워크



img21



img23

닫힌 장치



img24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img25